

## (1) 注水量

일반 목조 또는 방화 건축물 화재에 사용되는 이론상의 水量은 1㎡당 10~15ℓ로 되어 있다. 이것은 목재의 연소로 생성하는 발열량을 注水하여 발화 온도 이하로 떨어뜨리는데 필요한 水量이다. 그러나 이러한 水量으로 행하는 소화는 현실적으로는 不可能하기도 하고 화재 현장에서는 이것의 몇 배나 되는 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이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불가결한 水量이라면 과잉 주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위면적당 수량이 많으면 아무래도 水損을 입을 경우가 많고 소화 활동시에는 주수량을 적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량(水量)의 경감과 수손(水損)을 적게하기 위해서는 연소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주수를 반복하여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火炎逸走(Flame Propagation)

爆發性가스가 容器 内部에서 폭발을 일으켰을 때에 생기는 火炎이 용기의 접합면의 좁은 틈을 통해서 주변의 위험분위기에 點火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火炎逸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접합면에서의 좁은 틈의 깊이의 일정치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좁은 틈의 크기의 최대허용한 계치가 있는데 이것을 화염일주한계라고 한다.

## (3) 爆發等級(Explosion Class)

爆發性 가스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內容積 8,000 cm<sup>3</sup>, 半球部의 플랜지接合面의 좁은틈의 깊이가 25 mm의 球狀容器를 사용하여 그 좁은틈의 값을 변화시켜 측정한 火炎逸走限界値 — 즉 폭발성 가스의 위험도에 따라 구분된 등급을 말한다. 등급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위험도는 1, 2, 3의 순으로 높아진다.

